6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제104회기 총회역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함성익
서 기 신종철

1. 조 직

- 위 원 장 : 함성익
- 부위원장 : 김민교
- 서 기 : 신종철
- 회 계 : 강성규
- 총 무 : 최효식
- 위 원 : 조영기 박정권 박경문 김상원 김성환 서정수 민남기 강진상 송준학 조현우 이석우 박창식 김병희
- 고 문 : 장차남 정성구 서기행 박무용
- 자문/전문위원 : 김정훈 오광춘 손원재 김남식 심창섭 박용규 김효시 장영학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11. 25(월) 15: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역사위원장에 함성익 목사를 추대로 선출하다.
  ② 위원장의 지명으로 임원을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부위원장 김민교 목사, 서기 신종철 목사, 회 계 강성규 장로, 총 무 최효식 목사
  ③ 위원회의 각 분과장을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사료분과장 조영기 목사, 사적지지정분과장 강진상 목사, 연구분과장 박경문 목사
  총회역사관 운영분과장 김병희 목사
  ④ 각 분과위원 구성은 임원에게 맡기기로 하다.

2) 임원 및 분과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11. 25(월) 16: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익산서두교회의 순교자기념사업부 주관 순교자등재감사예배와 본 역사위원회 주관 사적지지정 감사예배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다. 이를 위해 위원장에게 맡겨 총회장과 순교자기념사업부장과 의논하여 일정을 정하기로 하다.
  ② 총회역사관내 사료를 교체하기로 하다. (103회기 총회임원, 총대명단 등)

③ 사적지 지정현판 제작하기로 하다.
④ 103회기 역사저널집 발간시 미지급금(700만원)과 사적지조사보고서연구비(1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하다.
⑤ 현재까지 스캔작업된 역대 총회회의록 PDF자료(38회~88회)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임원회 결정을 통하여 허락받은 연구진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다.
⑥ 각 분과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또한, 전체회의시 연구분과장으로 선임된 박경문 목사가 연구분과장직 사의를 표명하여 민남기 목사를 선임하다.
- 사료분과장: 조영기 목사, 박정권 목사, 이석우 목사, 송준학 장로
- 사적지지정분과장: 강진상 목사, 박창식 목사, 김성환 목사, 서정수 목사, 조현우 장로
- 연구분과장: 민남기 목사, 신종철 목사, 김민교 목사, 김상원 목사, 강성규 장로
- 총회역사관 운영분과장: 김병희 목사, 함성익 목사, 최효식 목사, 박경문 목사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12. 16(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104회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다.
가. 5-6월에 계획되었던 사적지조사발굴 현장답사를 2월이나 3월 중으로 하기로 하다.
나. 대구지역 4개 교회(반야월, 사월, 범어, 대구서문) 사적지 지정감사예배를 4월 26일(주일)오후7시, 반야월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기로 하다.
다. 2020년 정기학술세미나 주제를 신종철 목사, 박창식 목사, 김병희 목사에게 맡겨 1월 임원회의시 보고하기로 하다.
라. 총회역사관 직원임용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마. 사료실 정비에 관한 건은 1월 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다.
② 차기 임원회 및 분과장 모임을 2020년 1월 22일(수)오전11시에 모이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임원 및 분과장 회의)

- 일　　시 : 2020. 1. 7(화) 16: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으로 박형룡 박사 묘소이전 건은 서기가 확인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② 부귀중앙교회 사적지지정감사예배는 3월 12일(목) 오전11시에 갖기로 하다.
③ 정기학술세미나 행사준비를 연구분과에 맡겨 2월안으로 추진(안)을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④ 사료실 정리는 사료분과에 맡겨 사전점검하고 2월 17일(월)을 '사료실을 정리하는 날'로 정하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생(2-3인)을 구해 정리하기로 하고 총회본부 각국에서 사료실에 보관중인 각종 서류와 짐들은 2월 10일까지 치우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⑤ 제104회 총회시 사적지지정을 헌의한 교회에 대한 사적지지정조사현장답사를 2월 24일(월)~25일(화)에 진행하기로 하다.
⑥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 대구, 경북지역 사역지교회(4개 교회)의 사적지 지정감사예배를 반야월교회(이승희 목사 시무)에서 4월 26일(주일)저녁7시에 함께 드리기로 하다.
⑦ 역사저널집 발간의 편집위원장은 서기가 맡기로 하고, 연구분과와 상의하여 편집위원을 구성

하기로 하다.

⑧ 백령도 중화동교회 사적지 지정감사예배(백령도-한국기독교의 섬 명명 행사포함)를 4월20일(월)에 갖기로 하고, 임원과 분과장, 전)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하다.

⑨ 본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추경을 요청하기로 하다. (추경금액: 1천5백만원)

⑩ 사료기증 제출협조 및 총회역사관 탐방안내를 위한 기독신문 광고를 1월안에 내기로 하고, 사료분과에 맡겨 임원과 최종(안)을 상의하여 나가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연구분과회의)

- 일　　시 : 2020. 1. 20(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연구분과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분과장: 민남기 목사, 서기: 신종철 목사, 회계: 김민교 목사
위　원: 김상원 목사, 강성규 장로

② 학술세미나 행사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하다.
일시: 2020년 5월 28일(목) 오전10시, 장소: 대전 판암장로교회(홍성현 목사 시무)

③ 학술세미나 주제는 "한국전쟁 70주년과 기독교"로 하기로 하다. 강사는 박용규 교수, 김남식 교수, 이상규 교수, 주도홍 교수로 하고, 논평을 김효시 교수, 박창식 목사, 신종철 목사, 김병희 목사가 하기로 하다.

④ 역사위원회 임원회의시 연구분과의 사업계획(안)을 상정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사료분과회의)

- 일　　시 : 2020. 1. 21(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사료분과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분과장: 조영기 목사, 서기: 박정권 목사, 회계: 송준학 장로, 총무: 이석우 목사

② 사료기증 및 역사관 탐방안내 신문광고 초안을 검토하고, 사료 기증시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의 교회사료 및 유물(수난사, 각종회의록, 피해자료 등 사본제출가능)을 중점적으로 기증받기로 하다. 이를 위해 기독신문 광고와 함께 전국노회와 교회, 총회총대에게 협조공문과 단체문자를 발송하기로 하다.

③ 지난 회기 사업으로 역대 총회회의록 PDF 생성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다.
(현재 제38회~제88회까지 작업하였으며, 제89회~제104회기까지 진행해야 함)

④ 6층 사료실 정리와 관련하여 현재 사료실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당직원을 통해 듣고, 총회사료에 관한 체계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료실 공간마련은 필수적이며 이에 분과장이 위원장에게 6층 사료실 정리를 앞두고 관련사항에 대해 총회본부 각 부서와 협의를 요청하기로 하고, 역사위원회의 사료실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을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임원회의)

- 일　　시 : 2020. 1. 28(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박형룡 박사 묘소 이전관련 증경총회장단의 입장(총신대 양지캠퍼스로 이전요청)을 듣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총신대학교 입장(총장,교수,이사), 관공서(용인시)협조 등)
  ③ 연구분과 학술세미나 행사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예배순서는 임원에 맡겨 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강사진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다. 행사일시와 장소, 주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다.
  - 일 시: 2020년 5월 29일(금) 오전10시~오후3시
  - 장 소: 총회회관 (추후 행사인원을 파악하여 총회회관 2층 회의실 또는 5층 예배실에서 진행예정)
  - 주 제: 한국전쟁 70주년과 한국교회
  ④ 사료분과의 사료기증 협조 및 총회역사관 탐방, 학술세미나 광고를 오는 2월 4일(화)자 기독신문에 내기로 하다. (1면 컬러 5단 광고)
  ⑤ 6층 사료실 정리와 총회역사관 방문객 안내 및 소개, 사료실 관리를 담당할 임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추후 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⑥ 차기 임원회의를 2020년 2월 18일(화) 오전1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⑦ 역사위원회 현재 추진사업 소개 및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역사위원회 임원 및 고문, 자문,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2020년 3월 5일(목) 오전1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⑧ 지난 임원 및 분과장 회의시 결의하였던 추경금액을 수정하여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요청금액: 1천5백만원→ 2천7백만원으로 수정)
  ⑨ 인천노회에서 위원회로 제출한 『백령 바이블랜드 조성사업』 협조 및 후원요청의 건은 위원회 추경예산과 별도로 총회임원회에 추경청원을 요청하기로 하다. (요청금액: 1억원)

(7) 제7차 회의 (임원 및 고문, 자문, 전문위원 회의)

- 일　　시 : 2020. 2. 18(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역사위원회 임원 및 고문, 자문, 전문위원간 연석회의를 갖다. (사업소개 및 의견청취)

(8) 제8차 회의 (임원회의)

- 일　　시 : 2020. 5. 7(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박형룡 박사 묘지이전에 관한 건은 김남식 목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암교회에 공문을 보낸 후 5월중 청암교회 담임목사와 관련 담당자를 만나기로 하다.
  ③ 학술저널집 발간은 하기로 하고, 학술세미나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다. 학술저널집 원고료는 5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다. 학술저널집 편집은 서기 신종철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④ 백령도 중화동교회의 사적지 지정감사예배 및 백령도 한국기독교의 섬 명명식을 2020년 6월 8일(월)~6월9일(화), 백령도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⑤ 대구지역 사적지정감사예배는 코로나19상황을 살펴보며 진행해 나가기로 하다.
  ⑥ 사적지 지정조사 발굴답사를 2020년 6월 1일(월)에 진행하기로 하다.

⑦ 제105회 총회현장 기획전시회는 총회역사관 운영분과장 김병희 목사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⑧ 사료실 정리는 위원장과 사료분과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9) 제9차 회의 (임원회의)

- 일　　시 : 2020. 5. 27(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6월2일(화) 부귀중앙교회 사적지지정감사예배 후 사적지 현장답사를 하기로 하다.
  (수만교회, 신월교회, 학동교회, 송지동교회)
  ③ 고) 박형룡 박사 묘소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이전 건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하다.
  ④ 경북영주 연당교회 사적지 재답사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⑤ 총회사료실 정비의 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하다.
  ⑥ 위원회 예산안을 재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다.

(10) 제10차 회의 (임원회의)

- 일　　시 : 2020. 6. 22(월) 15: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대구 반야월교회의 사적지지정감사예배는 8월 9일(주일)저녁7시에 갖기로 하고, 순서자 선정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당일 임원회의를 오후 5시 30분에 교회에서 갖기로 하다.
  ③ 경북영주 연당교회의 사적지 답사를 7월 6일(월)낮12시에 하기로 하다.
  ④ 사적지 지정조사 보고서작성은 7월 18일(토)까지 제출하기로 하다.
  ⑤ 미제출된 역사저널집 원고를 6월 30일(화)까지 받기로 하다. (박창식, 신종철, 김병희 교수)
  ⑥ 역사저널집 제작에 관하여 총회출판부에 맡기기로 하고, 견적을 받기로 하다.
  ⑦ 차기 임원회의를 7월 6일(월) 경북영주 연당교회에서 모이기로 하다.

(11) 제11차 회의 (임원회의)

- 일　　시 : 2020. 7. 23(목) 12: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105회 총회보고서 및 청원서 초안은 위원장, 서기, 담당직원에게 맡겨 정리하도록 하다.
  ③ 제105회기 역사위원회 3년조 위원추천 건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④ 역사저널집 원고료, 제작비(선금) 및 사적지 지정조사보고서 연구비 지급은 회의결정대로 지급하기로 하다.
  ⑤ 8월9일(주일) 대구 반야월교회 사적지 지정감사예배는 유인물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당일 오후 5시 30분에 모이기로 하다.
  ⑥ 제105회 총회현장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던 6.25전쟁70주년 기획전시회는 하지 않기로 하다.

3. 결 산

(2020.7.22.현재)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비 고
회 의 비	8,000,000	회의비	6,971,000	전체회의, 임원회의, 분과회의 등
연구관리	32,000,000	역사저널집제작비	7,000,000	103회기 제작비 잔금
		사적지지정감사예배	4,910,000	여비, 순서비
		사적지현장답사	1,910,000	여비, 식비, 일비
		사적지현판제작	1,672,000	
		사적지지정조사연구비	1,000,000	103회기 사적지 조사보고서 작성
		광고비	2,920,000	- 기독신문(연1회,역사관탐방, 사료 기증협조요청 광고) - 목사장로기도회책자광고
		역사관사료교체	447,700	총회임원 및 총대명단교체
		잡비	249,350	택배발송, 다과음료 등
합 계	40,000,000	합 계	27,080,050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부의 20%감액 예산편성 요청에 대한 감액예산으로 진행함(원래 104회기 배정예산은 5천만원임)

〈현재까지 총회사적지 지정현황〉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1호	승동교회	제1호	염산교회
제2호	금산교회	제2호	만경교회
제3호	초량교회	제3호	소록도5교회(순교자 김정복 목사) (중앙,신성,동성,남성,북성교회)
제4호	주기철목사 일제강점기 수난지-의성경찰서	제4호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 사역지 6개처 교회 (중리,효선,현리,춘산,금천,산운교회)
제5호	중리교회	제5호	법성교회
제6호	전주서문교회		
제7호	군산구암교회		
제8호	개복교회		
제9호	광주양림교회		
제10호	송천교회		
제11호	고흥읍교회		
제12호	소록도5교회(순교자 김정복 목사) (중앙,신성,동성,남성,북성교회)		
제13호	삼도교회		
제14호	부귀중앙교회		
제15호	백령도 중화동교회		
제16호	익산 서두교회		
제17호	사월교회		
제18호	반야월교회		
제19호	범어교회		
제20호	대구서문교회		

한국기독교 순교 및 역사사적지 지정 조사보고서 (요약)

한국기독교 순교 및 역사사적지	
순교사적지	역사사적지
1. 학동교회 (북전주노회) 2. 수만교회 (북전주노회) 3. 신월교회 (북전주노회)	1. 위봉교회 (북전주노회) 2. 웅동교회 (순천노회) 3. 송지동교회 (김제노회) 4. 신전교회 (동전주노회) 5. 연당교회 (안동노회)

※ 위 사적지에 대하여 총회역사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역사위원들이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간략하게 요약하였음

1.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지정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의 3개 교회

1) 학동교회: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명 수만로 115-3 (담임: 이석윤 목사)
2) 수만교회: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로 1011 (담임: 이현규 목사)
3) 신월교회: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마저수로 1519-7 (담임: 김대식 목사)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의 위 세 교회는 전국 7대 오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노령산맥 산중에 위치한 교회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로 청원하나이다.

1. 마로덕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3개 교회

이들 세 교회는 마로덕 선교사 (Luther O. McCutchen, 매큐첸)의 선교로 설립된 교회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1902년에 내한하여 전주 동북부를 담당하며 선교활동을 하던 마로덕 목사는 동상면의 관문인 소양면 위봉 마을에 말을 타고 와서 전도활동을 펼친 결과 위봉교회를 설립했다. 동상면 학동 마을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장경문 씨(후에 학동교회의 초대장로)등 전도를 받은 성도들이 위봉교회를 출석하다가 1905년에 학동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교인들의 구령을 열정과 주변 교회들의 협력을 얻어 수만리 단지동에는 1906년에 단지동교회(현 수만교회)를, 면소재지가 있는 신월리 마제 마을에는 1907년에 마제교회(현 신월교회)를 설립하였다. 이곳 학동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불신 가정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고,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어 미신을 타파하는 등 복음을 통한 지역사회의 개혁에도 앞장선 교회들이었다.

학동교회(1905년 설립)

수만교회(1906년 설립)

신월교회(1907년 설립)

2. 1950년 좌익 세력에 의한 3개 교회의 성도들 12명이 순교함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지역 동상면은 초등학교 교장을 중심으로 남로당에 가입한 좌익세력이 암약하던 곳이었다. 그 책임자(조한봉)가 잡혀 처형을 받게 되었을 때 신월교회의 박용순 집사의 도움으로 풀려나 목숨을 부지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좌익들은 배은망덕하여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면서 매일 "분주소로 모이라, 교회로 모이라"며 기독교 신앙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의 성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고수하였다. 그러자 좌익들은 마을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조선 노래를 가르치고 사상교육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신실한 교인들은 고문하여 박해하였다. 그러던 중 1950년 음력 8월 15일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을 즐길 시간에 인민군의 퇴각과 더불어 주요 우익 인사와 단지동교회(현 수만교회) 김성원 목사를 비롯하여 각 교회의 장로, 집사, 교역자, 성도 등 50 여명을 양손을 뒤로 묶은 채로 신월리 형장으로 끌고 갔는데, 이때 몇 명의 평신도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최선순 집사는 생후 4개월인 어린 아기를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맡기며 "잘 길러주세요"라며 눈물로 생이별을 하였다. 좌익들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오늘 천당가는 날이다"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성도들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라며 서로 격려하면서 돌이 많은 골짜기로 끌려갔다. 무지비한 그들은 제일 뒤에 따라가는 최선순 집사의 등을 개머리판으로 치고, 이어 차례대로 돌과 삽과 괭이로 찍고 총으로 쏘아 100미터를 끌고 가면서 계속 죽였다. 죽어가는 성도들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 때 믿다가 낙심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최복수씨도 교인들을 죽이지 말라고 권유하러 갔다가 만류하던 그마저 살해되고 말았다. 이날 순교하신 세 교회의 순교자 13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만교회(2명): 김성원 목사, 김영옥 집사
학동교회(5명): 장순 집사(33세), 장종석 성도(47세), 장장수 집사(31세), 장순예 전도부인, 이주선 집사(40세)

신월교회(5명): 김태환 집사(37세), 박용순 집사(46세),
최선순 집사(40세, 박용순의 처), 김성녀 집사(46세),
김영하 집사(45세), 박복수(당시 낙심상태)

순교자 기념비

이튿날 끌려가던 모습을 지켜보던 박상락(순교자 박용순의 2남, 당시 15세)이 외삼촌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처참하게 순교한 이들을 수습하여 다음날 동리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떤 예식도 갖지 못한 채 급하게 매장하였다.

이들의 순교에 대한 기록은 순교자의 아들인 박상락 장로가 당시 15세 때 경험한 생생한 내용을 〈아직도 마르지 않는 눈물〉(신앙생활사, 1999)로 발간함으로써 순교의 전모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2007년 총회순교자기념사업부가 발행한 〈순교행전- 죽으면 사는 은혜〉를 발간하여 이들의 순교사적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총회는 이들 모두를 총회순교자 명부에 등재하였으며, 1999년에는 이들을 위시한 완주군 일대의 교회 순교자 20여명을 기리는 순교기념비를 신월마을에 건립하였다.

3.조사자의 소견: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에 위치한 상기의 세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마로덕 선교사의 선교로 설립된 초창기 교회로서 충분히 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한국전쟁 어간에 이들 교회에서 발생한 13명의 순교자들의 순교는 교회 역사에 길이 드러내야 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다. 앞으로 이 순교사와 정신을 더욱 함양함으로 오는 세대에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의 세 교회는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며 이에 보고하나이다.

2.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1) 위봉교회: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위봉길 7-8 (담임: 안양호 목사)

위봉교회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교회로서 전국 7대 오지 중의 하나인 노령산맥의 깊은 산중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도 해발 380미터 정상 부근에 남아 있는 위봉 산성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주변에 이름난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사 깊은 곳이다. 이런 첩첩 산중에도 한국기독교 초창기부터 복음이 전래되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들을 고려할 때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보고를 하는 바이다.

1. 마로덕 선교사의 사역으로 설립된 교회

마로덕(Luther O. McCutchen, 매큐첸)은 1873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비숍빌리 출생으로 데이비슨 대학, 유니온신학교, 콜럼비아 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02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1908년 하운셀과 결혼하였다. 목포를 거쳐 전주에 부임하여 순회 전도를 실시하고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북과 충남지방에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전도자를 양성하였으며, 일제 말기에 강제 추방을 당하였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선교 사역을 한 후에 귀국

마로덕 선교사

하여 1960년에 사망하였다. 그는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을 선교구역으로 삼고 많은 선교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무진장의 사도'라 하였다.

전언에 의하면 마로덕 선교사는 전주에서 말을 타고 위봉 산성을 넘어와 위봉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위봉교회는 설립년도를 190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마로덕 선교사가 1902년에 내한한 것을 고려하면 설립연도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위봉교회는 노령산맥 깊은 산중에 설립된 최초의 교회로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역사에서 큰 의의를 점하고 있다.

2. 위봉교회는 동상면 교회들 설립의 모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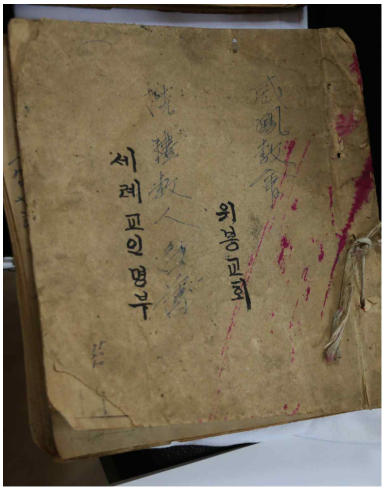
위봉교회는 소양면에 위치하지만 동상면의 관문으로 동상면의 여러 교회들이 설립될 수 있는 모태 교회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위봉마을에서 가까운 학동에서 전도를 받아 위봉교회를 출석하다 1905년에 학동교회를 설립하였다. 이 결과 이듬해인 1906년에 수만교회(당시 단지동교회)가 설립되었고, 1907년에는 신월교회(당시 만재교회)가 설립되었다. 결국 위봉교회는 완주군 동상면의 교회 설립의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위봉교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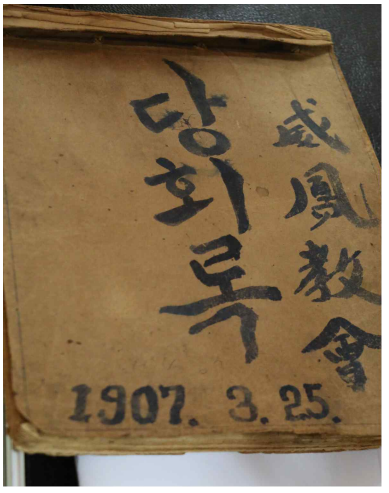
설립 100주년 기념비

3. 100년이 넘는 당회록과 세례교인 명부 발견

2018년 12월 24일 성탄절 전일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강단을 수리하던 중에 강단 오른쪽에서 그동안 고이 간직되어 오던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교회의 역사가 더욱 분명해졌으며, 초창기 교인들의 상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례교인명부



1907년 당회록

4. 활발한 역사화 작업진행 중

현재 담임인 안양호 목사의 주도 아래 이 지역에 마로덕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는 역사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최근에 예배당 2층을 마로덕 선교사 기념실로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마로덕 선교사 선교기념비 건립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총회와 교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5. 조사자 소견: 상기 위봉교회는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지역 최초의 교회요, 지역 여러 교회들의 모태교회로서 선교사적, 교회사적인 의의를 가지므로 한국기독교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하나이다.

2) 웅동교회: 전남 광양시 진상면 웅동길 36-2 (담임 서승기 목사)

1. 교회의 설립 배경

역사위원회는 2020년 5월 28일에 전남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웅동의 웅동교회를 탐방하여 담임인 서승기 목사를 통하여 웅동교회의 주요 연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 웅동교회 예배당과 바로 그 아래에 위치한 광양기독교100주년기념관을 돌아보았다. 웅동은 광양의 높은 백운산(1,222m)의 남쪽 능선 아래 깊은 골짜기의 첫 동네로 곰이 웅크리고 모습과 같다고 하여 웅동(熊洞)이라고 불렸단다. 구한말에 웅동은 백운산의 깊은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서 동학도와 의병들의 은신처와 가까운 곳이었다. 그런데 일제의 손이 미치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한태원이라는 낯선 사람이 찾아들었다. 그는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의 자객들을 제물포까지 뒤쫓아 가서 살해하고 일제에 의해서 수배령이 내려지자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광양 웅동의 깊은 산골짜기로 피신해서 숨겼다. 당시 21가구의 외진 마을 주민들은 이 의로운 외지인에게 호의적이었다. 조용한 외딴 산골짜기 마을에 외지인이 찾아들었다는 소식은 광주까지 전해졌고 광주 검사국 직원 한 사람이 그 외지인이 혹시 한태원이 아닌지 확인하러 웅동에 찾아들었다. 당시 한태원은 그 마을 사람 서병준, 장기용, 박

희원 등과 어울리며 노름으로 소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항상 신변에 위협을 느꼈던 한태원은 이미 마을에 함구령을 해놓고 주막에도 연락망을 두어 낯선 외지 사람이 찾아오면 즉시 연락을 하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놓았다. 그런데 광주에서 한 관리가 웅동에 찾아왔을 때 한태원을 잘 숨겨놓고 그 마을 친구 세 사람이 관리를 맞아서 잘 대접했다. 웅동의 세 젊은이와 함께 노름판에 끼게 된 이 관리가 "노름꾼을 잡으러 왔다가 내가 잡혔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더 이상 노름을 하지 말라고 하니 그들은 "시대는 동학으로 어지럽고 농사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잘 할 수 없으니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방안을 알려 주시오."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이에 이 관리는 자신은 안 믿지만 광주에 가면 '야소교(耶蘇教)'라는 도(道)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도(道)를 믿으면 노름도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된다더라.'고 말하며 광주의 조상학을 소개해주었다. 당시 목포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광주로 막 올라온 미국 선교사 배유지 선교사(Rev. Eugene Bell, 1968-1925, 제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와 오기원 선교사(MD. Rev. Clement Carrington Owen, 1867-1909)가 1904년 12월 성탄절에 양림동 배유지 선교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광주에서 야소교의 선교활동을 막 시작한 무렵이었다.

당시 웅동에서 광주까지는 300리(124km)가 넘는 멀고 험한 길로 몇 개의 산을 넘어가야 갈 수 있었고 장정이 나흘을 꼬박 바쁘게 걸어야 하는 거리였다. 그 관리가 웅동을 떠난 후에 웅동의 세 장정들은 야소교의 도에서 희망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걸어서 사흘 만에 조상학이 있다는 광주 양림동 책방에 1905년에 도착했다. 서병준은 웅동마을의 정교(政教) 간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역학과 사주관상에 능했고, 장기용은 유명한 한학자 형제들을 둔 진취적인 인물로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박희원은 무과(武科) 사과(司科)에 합격한 인재로 세 사람이 다 패기 있고 기대되는 장정이었다. 재능과 꿈은 있었지만 웅동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할일없이 시간을 허비하던 세 장정들이 야소교의 도(道)에 대하여 뭔가 알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광주의 조상학을 찾아갔다. 당시 광주 양림동의 조상학(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됨, 1877-1950 순교)이 야소교의 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야소교 신자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들은「광양100주년 기념자료」,「선교 열전」,「한국교회 순교사」,「조상학 목사 약사」,「순천지역 초기선교 역사 연구」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하면 1905년에 조상학은 야소교 신자이었거나 또는 야소교 교회와 연관이 있었거나 야소교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조상학은 웅동의 먼 곳에서 광주로 자신을 찾아온 세 장정들에게 야소교에 대하여 말해주었고, 야소교의 도를 누구에게 배워야할 지 알려주었을 것이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조상학은 웅동의 세 장정들에게 야소교의 도를 먼저 전하였고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막 시작한 의사이며 목사인 오기원 선교사를 소개했고, 세 사람은 광주에서 조상학과 오기원 선교사를 만나서 야소교 복음을 배워서 뜨거워진 믿음을 안고 웅동으로 돌아왔다. 순천노회사에 의하면 당시 웅동은 21가구에 인구는 110여명 정도였는데 광주에서 돌아온 서병준, 장기용, 박희원은 광주에서 조상학과 오기원 선교사를 통하여 배운 야소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1905년 5월 4일에 웅동의 사랑방에 모여 자발적으로 예배를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동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사랑방에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며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광주에 가서 들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양재는 그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백운산 아래 깊은 골짜기 웅동의 사랑방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광양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제대로 정리했다(2000, 48). 웅동 사랑방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1905년 11월 3일에 그 예배처소가 협소하여 더 큰 동네이고 더 아래쪽인 신황리의 박희원의 집으로 예배 처소를 옮겨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후에 한

옥 8칸을 매입하여 신황교회가 설립되었다.

2. 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런데 신황리로 옮겨간 성도들 가운데 웅동에 사는 서병준과 장기용이 중심이 되어 웅동으로 다시 돌아와서 1908년 10월 20일에 예배당을 신축하여 드디어 웅동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웅동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웅동은 21가구에 인구는 110여명 정도였는데 광주에서 돌아온 서병준, 장기용, 박희원은 광주에서 조상학과 오기원 선교사를 통하여 처음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에 뜨거워져 1905년 5월 4일에 웅동의 사랑방에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더 나아가 동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까지 불러 모아 사랑방에서 함께 6개월 동안 예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더 넓은 신황리로 옮겨가서 신황교회를 설립하고서 다시 웅동으로 돌아와서 웅동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웅동교회를 설립하였다는 것은 서병준과 장기용을 중심의 웅동 성도들의 신앙 열정과 교회 사랑이 놀라웠다고 본다. 이양재는 그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신황교회의 시작을 웅동교회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았고 웅동교회에서 신황교회로 예배처소를 옮긴 이유도 웅동의 예배처소가 협소하고 웅동 마을이 너무 깊어서 산 아래쪽에 넓은 신황리로 불가피하게 옮겼다고 한다 (2000, 48). 웅동교회와 신황교회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그 예배 처소와 그 구성원들이 교회 설립 초기에 서로 함께 중복되어 있고 서로 잘 연합했다. 이양재는 웅동교회 설립에 헌신한 사람을 훗날 그 교회의 장로로 장립했는데 그들이 서병준과 장기용이었다(2000, 48)고 지적한다.

순천노회록과 여순사건 때 불타버려서 나중에 작성된 웅동교회 당회록을 참고하여 훗날 작성된 웅동교회의 연혁에 나타난 성장과 부흥의 주요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1910년 10월에 변요한 선교사(Rev. John Fairman Preston, 1875-1975)가 12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웅동의 인구가 110명인 것을 감안하면 웅동교회, 신황교회, 지랑교회, 섬거교회, 원당교회 등 5개처 교회의 세례자를 다 포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놀랍다. 1912년 고라복 선교사(Rev. Robert Thronwell Coit, 1878-1932, 순천 매산학교 초대 교장)가 다시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교회가 전도하는데 열심이었고 새로 믿는 신자들이 계속 생겨났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12년에 웅동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구 예배당은 학당으로 사용할 만큼 교회는 부흥 성장하였다. 1917년에 서병준과 장기용이 장로로 장립을 받아서 웅동교회가 장로 2인의 조직교회로 크게 성장하였다. 1921년 평양신학교(15회)를 졸업한 조의환 목사가 웅동, 신황, 지랑, 섬거, 원당 5개처의 지방교회의 목사로 청빙 받아 시무하였다. 1922년 순천노회가 조직될 때 선교사 2인, 목사 4인, 장로 9인 중에서 웅동교회 서병준 장로와 장기용 장로가 당당히 그 9인에 포함되었다. 1924년에 서병준과 장기용가 광주에 찾아갔을 때 처음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조상학 목사가 웅동교회 당회장이 되었다. 1934년에 당회장 김순배 목사가 순천노회에 제출한 웅동교회의 보고는 “지난 1년간 원입교인이 증가하고, 면려 청년회 활동으로 아동과 장정에게 매주일 전도하는 일이오며, 면려 청년회, 사경회, 성경학, 성경통신, 가족기도회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일이오며, 우월순 박사 부인(Mrs. Wilson)을 청하여 3일간 부인사경회를 개최하여 많은 은혜를 받은 일이오며, 우월순 박사(MD. Rev. Robert Manton Wilson, 1880-1963, 초대 여수 애양원병원장)가 의료기구와 약품을 친히 가지고 와서 빈궁한 환자에게 시약 시술을 하였으며, 면려 청년회에서 도서를 구입하여 회원으로 윤독해서 지식을 향상케 하였나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1935년 성도수가 증가하여 35평 석축건물로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다.”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 상황을 기록하였다. “1936년에 순천노회에서 정한 교회 분담금은 웅동

교회가 3,000원, 신황교회가 2,000원, 광동중앙교회가 5,000원, 순천읍교회가 20,000원이라."는 기록을 봐서 웅동교회는 5~600명이 회집했던 신황교회보다도 당시에 재정적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다. 1936년 웅동교회 당회장 김순배 목사 순천노회에 웅동교회의 보고에 "웅동은 전 촌락이 거의 신자 가정으로서 기독교 이상촌으로 성장하는 중이오며 교인이 다른 동네에까지 단체적으로 전도하여 많은 신자를 얻은 일이오며 서당이 새로 설립되어 신자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이외다."라고 감동적으로 기록하였다. "1938년에 순천 성경학교에 웅동교회의 서재신, 김성주, 장맹식이 입학하였다."고 과거 왕십리교회의 담임목사(1953-1987)였던 서재신 목사가 웅동교회의 학생으로 순천 성경학교 입학한 사실까지 기록하여 인물을 키우는 교회의 모습도 담겨 있다. 1938년 8월 5일에 광양지방 제5회 수양회에서 '신사참배 반대의지를 다지다.'고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해에 오히려 심사참배 반대했다는 놀라운 기록도 나온다.

장현종 조사(助事)의 보고에 의하면 "백운산 산중에 야만을 면하기 어려운 깊은 골짜기인데 1908년에 주의 복음이 들어와 21가구의 110여명 남녀노소가 다 예수를 믿은 후에 허다한 은혜와 특별한 영광이 다할 수 없이 임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어두운 무속의 습관을 일체 회개하고 국문을 학습하여 남녀가 다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황무지를 개간하여 전답을 만들고 부지런히 일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주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된 줄로 알고 감사함을 앙고합니다."(순천노회사)고 웅동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복음과 주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웅동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가 지난 후에 웅동교회에 대한 순천교회의 이용직의 보고도 감동적이다. "웅동의 주민 서병준씨가 주의 말씀을 먼저 받고서 회개한 후에 자기만 주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수년 후에 그 동네 남녀가 다 회개하여 예수 믿으며 참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중에 아름답고 신령한 교회를 일구었다. 성경말씀에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갈 6:7)는 말씀이 옳도다. 이 곰골 동네에 이상한 일 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년 전에 그 지방에 큰 비가 옴으로 그 동네 뒷산에서 큰 산사태가 나서 밤중에 흘러내려 오다가 그 동네 인가를 살짝 피하여 내려갔으니 이것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둘째는 멧돼지가 산중인 그 동네에 난데없이 자주 출몰하여 동네에 다니며 동네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데 동네사람들이 이 일로 합십 기도하였는데 그 많던 멧돼지들이 일절 없어졌고, 셋째는 참새 떼들이 작년 가을에 동네 들판의 곡식에 날아들어 농부들이 수고하여 재배한 곡식들을 쪼아 먹는 고로 근심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합심 기도하였더니 그 많던 참새 떼들이 없어졌으니 참 이상하도다. 이 몇 가지 일을 보면 웅동 동네사람들의 간절한 신앙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증거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중에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유무상통하며 빚진 자들을 도와주며 동고동락하여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각각 성업도 근력함으로 타처에 곤핍한 교회까지 도와주는 일이 많으니 참으로 이 교회가 각처에 모범이 되었다."(순천노회사)고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6년 9월 2일 평양에서 개회한 제5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광신학원(광양 신황의 약자)'을 허락했는데 이 지역에 사숙(私塾)은 이미 1910년부터 개설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광신학원의 원장은 박희원 장로가 맡아서 신황, 신전, 웅동, 죽림 등지의 학생들을 모아 가르쳤는데 배우고 싶은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오면 모두를 가르치며 4학년 과정까지 있었고, 5학년부터는 순천 매산학교에 편입하여 계속해서 공부하는 길로 이어졌다. 사숙의 학생은 30여명

에 이르렀으며 2학년에 15-17세의 학생들이 있기도 했다. 1910년에 시작된 사숙은 광신학원으로 이어져 1940년 일제의 선교사 추방과 함께 폐쇄령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광신학원 출신자로는 김형모 박사, 김응선 장로(전 국회의원 김명규의 선친), 장형일(장기용 장로의 아들로 구세군 부령을 지냄) 등이 있다.

「우리광양 자랑거리」(p.69)에서 웅동교회의 서병준 장로에 대하여 광양 사회에서 칭찬했다는 것은 그의 탁월한 지도력과 뚜렷한 민족의식과 교회에 대한 헌신을 엿보게 한다. "서병준 장로는 원래 웅동 마을 정치와 교육에 있어 어른이었다. 역학과 한학에 능했으며 사주 관상도 보았다. 그는 성격이 엄했고 한문에 능하여 마을에서 한문을 가르쳤다. 이후 그가 예수를 접한 후에는 불신의 책을 모두 태워버리는 대쪽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다. 특히, 서병준 장로는 한일합방 이후 진상면 비평리 비촌마을 황씨들과 함께 백운산 바구리봉 밑 토굴을 근거지로 하여 독립운동을 했는데 교인들이 많이 합류하였다. 또한, 수백명에 달하는 웅동교회 교인들이 이들을 측면지원해 주는 등 교회 자체가 항일투쟁의 교두보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측면지원은 광양, 하동 등지의 장날이 섰을 때 얻어지는 정보 전달, 식료품 지원, 무기 전달 등을 말한다. 장기용 장로의 아들인 장형일 구세군 부령의 글에 의하면 '서병준 장로는 웅동의 촌장 격이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탁월한 지도자였다(나의 분수를 깨우쳐 주신 스승).

3. 교회의 시련과 극복

웅동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회집하는 신황교회보다 노회분담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흥 성장했지만 여순 사건 때 예배당과 온 마을이 전소되는 굴곡의 아픈 역사를 겪었고, 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여가는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115년 동안의 교회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웅동교회의 서병준 장로, 장기용 장로는 1917년에 장립을 받아 순천노회 초대장로 7인 중 2인이었고 그 후 강윤석 장로는 1935년 2대 장로가 장립되었고, 서홍석 장로가 1987년 제3대 장로로 장립되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1940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광신학원이 폐쇄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1949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순사건이 광양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위 반란군이라는 사람들이 백운산 깊은 산골짜기 마을인 웅동에도 찾아들었다. 그들은 경찰들에 쫓겨 배고픔에 깊은 산골짜기 웅동에 숨어 들어와서 탈취한 소를 잡아와 식사 준비를 강요했고 동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따르던 경찰관들이 동네에 총을 쏘며 갑자기 급습해 왔고 그 반란군들은 다 사살되었다. 성난 경찰들은 온 동네 사람들을 논으로 불러 모아놓고 반란군들에게 음식을 해주었다고 남자들을 반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매로 때렸고, 불온자를 가려낸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그 동네사람들이 거의가 다 웅동교회 신자들이어서 사실 불온자는 없었다. 경찰들이 불온 사상자를 가려낸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살기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그냥 대답하였단다.

그 때 마침 마산 15연대 군인들이 그 동네로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경찰들을 책망하였고 동네사람들은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정부는 백운산 깊은 산골짜기 웅동 마을과 교회가 반란군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15연대 군인들을 동원하여 다 불살라 버렸고 마을 사람들을 진상면 면소재지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웅동에서 12km나 떨어진 면소재지로 이주되었기에 그들은 새벽 일찍 출발하여 웅동 전답에 가서 농사일을 하고 석양에 다시 면소재

지로 돌아오는 일은 몇 년간 계속해야 했다. 그들은 진상면 면소재지 광동중앙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전쟁 중 1952년에 잡초만 무성한 웅동 마을 집터로 돌아서 다시 자신들의 집을 짓고 불타버린 교회의 사택을 먼저 지어 예배하며 시련을 딛고 일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1955년 11월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설립 5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고, 1957년 10월 15일에 백운산에서 홍송을 베어다가 30평의 기와한옥예배당을 건축하여 1959년에 1월 30일에 김형모 목사의 설교로 헌당예배를 드렸다. 1959년 교단이 WCC 문제로 나누어질 때 웅동교회는 우리 교단에 섰는데 서울노회 역대 임원명단을 보면 1959년 노회장은 이환수 목사(청암교회), 부노회장은 강신명 목사(새문안교회), 서기에 서재신 목사(왕십리교회, 웅동교회 초대 장로 서병준의 아들)였기 때문에 (서울노회 역대 임원 명단) 웅동교회가 교단을 선택할 때 어려움이 없이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순천성경학교 학생이었던 김성두, 김춘자 전도사 부부가 웅동교회의 담임교역자였다. 깊은 산골짜기의 웅동 마을은 번성할 때는 60호가 되었으나 60-70년대의 산업화의 영향으로 25가구가 이주하여 가면서 웅동교회의 신자들이 줄어져 한동안 담임교역자를 청빙하지 못해 교회운영이 어려웠고 예배당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02년에 초대 서병준 장로의 집안 후손인 서승기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웅동교회 출신 여러분들의 도움과 10여명의 신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옛 예배당 대지에다 최신식 21평의 새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2020년 현재 웅동은 20호에 인구는 30여명이며 웅동교회 출석 성도는 10여명이다.

광양 최초의 교회인 웅동의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설립된 백운산 깊은 산골짜기의 웅동교회 예배당 바로 아래에 광양기독교100주년기념관이 2008년에 세워졌다는 것도 웅동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4. 교회출신 주요 인물들

1904년 광주에서 내려온 관리의 말을 듣고 광주의 조상학을 찾아갔던 서병준, 장기용, 박희원(신황교회) 세 사람은 후에 다 장로가 되었다. 웅동교회의 현 담임인 서승기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웅동교회 출신 서병준 장로와 장기용 장로의 후손들에게서 20명이 넘는 교역자들이 배출되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役事)가 아닐 수 없다.

1) 서병준 장로 후손

(1) 목사

서병준 장로의 가정에서
서재화 목사(서병준 장로의 3남. 1902. 3. 19),
서재신 목사(서병준 장로의 자. 1914. 3. 1. 왕십리교회 5대 담임목사 1953-1987),
서보라 목사(미국. 서재화 목사 자)
서현식 목사(여수 애양원교회, 산돌교회 목사. 통합 여수노회 공로목사)
서홍재 목사(증손자)
서진석 목사(순천 신성교회 은퇴)
서용진 목사(나주 상촌교회)
서승기 목사(현 웅동교회 담임)

서승호 목사(화덕교회)

(2) 선교사

서은수 선교사(탄자니아)
서광일 선교사(라오스)
서신미 선교사(김환기 목사)
서은영 선교사(김정호 선교사)
서영예 선교사(김사실 목사, 광주 은광교회 은퇴)
서승례 선교사(최종철 목사, 고흥 두원교회 은퇴)
서홍은 목사(L. A.)

2) 장기용 장로 후손

장형일 구세군 부령 은퇴
장중식 목사(순천 고등성경학교 교장)
장일선 목사(전 한신대 구약학 교수)
장춘식 목사(서울 한강감리교회 은퇴)
장중식 목사 큰 따님(원주 기독병원 원목실장 노태식 목사의 사모)
장성식 목사(백석대 선교학교수)
정윤성 목사
정봉규 목사(셋째 누님이 아들, 서울 은성교회 은퇴)
임산우 장로(순천 지본교회)
서현욱 장로
김용환 장로(서울 신목교회 은퇴)
서동석 장로(서울 충현교회 은퇴)
서경순 권사(소망교회) 등

백운산 깊은 산골짜기의 작은 웅동교회에서 이처럼 귀한 한국교회의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웅동교회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교회에 대한 충직한 헌신과 서병준과 장기용이 웅동교회의 장로의 지도력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탁월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5. 한국교회 사적지로 지정해야 할 이유

웅동교회는 서병준, 장기용, 박희원이 광주에 가서 조상학과 오기원 선교사를 통하여 처음 배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돌아와서 1905년 5월 4일에 웅동의 사랑방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한국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많지만 광양 백운산의 깊은 산골짜기에 광주에 가서 복음을 듣고 배워서 확신하고 돌아온 젊은 장정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예배하다가 그 동네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배드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큰 동네인 신황리로 옮겨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8칸 한옥집을 매입하여 예배를 드리며 신

황교회로 성장했다. 그런데 웅동사람 서병준과 장기용은 웅동에 다시 돌아가서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당을 건축하여 웅동교회를 설립하였다. 웅동의 기도처에서 신황교회로, 다시 웅동교회로 성장해 갔던 모습은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모범적인 성장 모델이다.

서병준과 장기용은 웅동교회 장로로 1917년에 장립하여 순천노회 최초 7인의 장로 가운데 포함되었고, 1922년 순천노회를 조직할 때 9인의 장로 가운데 2사람일 정도로 출중한 신앙의 열정과 민족과 역사 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었다. 우리 교단의 거목이었던 서재신 목사가 서병준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고, 구세군의 장형일 부령이 바로 장기용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잘 교육을 받아서 한국교회에 우뚝선 지도자들이 되었다. 웅동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많은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된 것은 서병준 장로와 장기용 장로의 탁월한 헌신과 지도력에 기인한 것으로 봐서 전혀 놀랍지 않다.

웅동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독교 이상촌을 지향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 열정과 헌신도 대단하였다. 1949년 여순사건에서 마을과 교회당이 다 불탔음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마을을 세우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도 변함없는 불굴의 신앙 열정이었다. 백운산 자락의 깊은 산골짜기의 60호에서 산업화의 영향인 도시 이주로 인하여 20호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10명의 성도들이 현대식 예배당을 건축하는 등 꾸준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도 미자립 시골교회의 귀중한 모범이다. 기독교 이상향을 지향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사랑을 동네와 이웃 동네에까지 나누어주었고, 산골교회로서 시대의 어려운 시련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름답다.

웅동교회는 광양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젊은 장정들이 진리를 사모하여 외지에 나가 복음을 듣고 와서 자발적으로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들과 함께 더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성장했고, 시련도 잘 극복했다는 모범적인 가정교회의 교회사적 가치와 한국교회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3) 송지동교회: 전북 김제시 공덕면 송지동 2길 5-38 (담임 장현식 목사)

김제군 공덕면 송지동교회는 1896년 전킨(전위렴) 선교사로부터 송원선, 강문성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영접하고 송지동 문학선의 방 하나를 빌려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는 기도처였다. 그 후 1897년 5월3일에 최치국 등 다수의 신자들이 협력하여 송지동교회를 설립하였다.『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1897년. 김제군(金堤郡) 송지동교회(松枝洞教會)가 성립(成立)하다, 선시(先是)에 선교사(宣教師) 전위렴(全緯廉, William M. Junkin, 1865~1908)이 당지(當地)에 래도(來到)하야 전도(傳道)함으로 송원선(宋元善), 강문성(姜文成), 등(等)이 시신(始信)하고 신자(信者) 점차 증가(漸次增加) 한지라. 지시(至是)하야 예배당(禮拜堂)을 신축(新築)하니 교회(教會)가 완성(完成)하니라.

이때 당회장은 전킨이었으며 그는 한달에 한번씩 조랑말을 타고 군산을 출발해서 나룻배를 타고 송지동에 왔다. 1905년 7월30일 오후 1시에 최초의 장로인 최치국의 장로 장립식이 있었는데 당

시 당회록에 따르면 이때 예배드린 교인은 87명이었다. 초대 최치국 장로로 시작하여 오늘날(2016년)까지 총 14대에 이르러 신실한 장로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송지동교회는 김제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워 분립시켰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주변에 교회는 송지동교회 밖에 없었고, 너무 멀리서 교인들이 송지동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교회를 세워주고 분립시키는 일은 송지동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다. 1901년 남전교회가 분립하고, 1903년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의 대송리 교회, 1920년에는 만경면 대동리의 대동교회, 1931년에 대신교회, 1933년에는 동계리교회(공덕중앙교회), 1940년에는 상리교회, 1952년에는 송산교회, 1954에는 대산교회, 1958년에는 월현교회, 1960년에는 조종교회가 차례로 분립해 나갔다.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송지동교회는 김제, 익산지역에서 '모체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것이다.

송지동교회가 설립된 이후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철저한 보수신앙으로 교인들을 훈련시켰다. 특히 올바른 교회 생활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교인들에 대한 권징을 제대로 실시하였다.

'주일성수를 잘하지 못한 자', '이웃 간에 불화한 자', '7계명을 범한 자', '술 마시는 자', '우상숭배로 제사하는 자',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에 대하여는 '근신'과 '제명', '수찬정지' 통해 말씀중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성경중심신앙'을 전수받는 송지동교회는 일제시대에도 변함없이 보수주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갔다. 일제는 송지동교회에 찾아와 찬송가를 빼앗아다가 불살랐으며, 왕은 천황폐하 뿐인데, 만왕의 왕 예수 또는 왕이 나셨다고 한다며 찬송가에 왕이란 말이 나오는 부분은 먹칠을 해서 갖다주고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 당시 먹칠 당했던 그 찬송가가 지금도 송지동교회 5층 당회실에 보관되어 있다. 일제의 계속된 신사참배의 강요와 핍박 속에서도 송지동교회 교인들은 굴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1945년 해방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1950년에 발발한 6.25남침 한국전쟁은 한국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송지동교회에게 엄청난 고난의 행보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고난의 행보 속에서도 송지동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바로 신앙을 절개를 지킨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공산당의 하수인들로 인해서 김성기 집사가 백구면 난산에서 순교를 당했다. 또한 김창우 집사의 두아들(김진옥, 김진관)은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는데 공산당에 의해 끌려가서 외항산에서 학살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산당들은 교회문서를 내놓으라고 교회를 협박하고 괴롭혔으나 당시 김만수 장로가 당회록과 문서들을 강단 밑마루를 뚫고 숨겨 두어 보존하였다.

이런 까닭에 송지동교회는 1905년부터 일제 강점기, 6.25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오늘까지도 당회록을 잘 보존해 오고 있는 얼마되지 않은 교회 중의 하나이다. 또한 오늘날까지 단 한번도 폐당회가 된 일이 없는 교회이다.

현재 교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교회운동장(잔디밭) 및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고 풀장을 완공하였고 1991년 현 교회당을 기공하여 1992년 완공하였다(연건평 161평-본당:104평, 2층:37평, 3층:20평). 계속해서 교회부지를 확보하여 1996년 부지 2,000평을 매입하였고 식당(1996, 100평)과 교육관(1998, 50평)도 신축하였다. 현재 교회의 총 부지는 약 5,600여평이 된다. 특별히 주목

할 것은 첫째는 교회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가 분립되어 나갔으나 교화가 갈라지거나 싸우거나, 타 교단으로 간 일이 없이 남장로교 선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정통신앙을 사수하며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가는 교회로 그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훌륭한 신앙의 교역자들이 송지동 교회를 담당해 왔는데 초대 전위렴(전킨)목사를 시작으로, 하위렴 목사, 부위렴(불) 목사가 사역했고 장로교 한인 최초의 총회장을 역임했던 김필수 목사, 그리고 증경총회장 서기행목사가 전도사와 강도사로 사역했고(1962. 1. 3.~1965. 5. 3), 현재 담임하고 있는 장현식 목사는 1989년 부임하여 근 30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해야 할 근거

무형의 자산

1) 전라도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교회(최초의 교회는 전주 서문교회)로, 1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교회이다.

2) 김제 및 익산지역에 10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분열이나 싸움없이 모체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이다.

3) 미국 남장로교의 '성경중심 신앙'을 파수하고 삶속에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모범적인 교회이다. 송지동교회는 초창기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교인들에게 권징을 시행해 왔으며,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이 꺾이지 아니하고 예배에 힘썼다,
6. 25남침 한국 전쟁시에 교인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배출되었고, W.C.C 신학문제로 합동과 통합의 교단분열의 와중에서도 우리 합동교단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까지 정통신앙을 지켜온 교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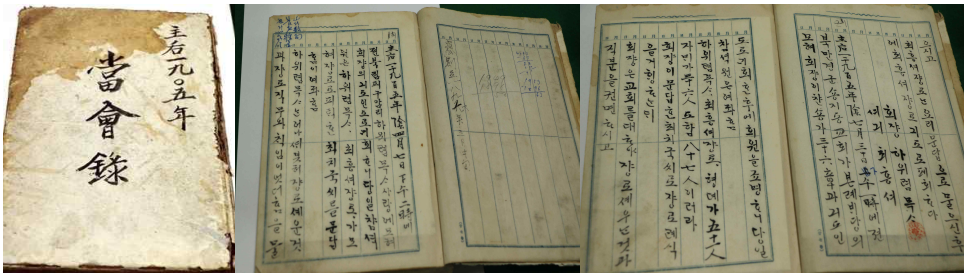
유형의 자산

1) 1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한 당회록을 분실없이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한 교회이다 (1905년 제1회 당회록부터 현재까지 보관됨)

2) 일제 강점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찬송가와 1896년대 교인 전출입명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첫 예배가 열린 초가집에서 뜯어낸 마룻바닥, 'ㄱ'자 교회당의 상량문이 적힌 목재 등 교회의 옛 흔적들을 보관해두고 있다.

3) 성찬식에 포도주 배잔용으로 사용된 성찬기들을 보관하고 있다. 사기잔에 초록, 파랑, 빨강색띠를 두른 이 성찬기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이 성찬기들이 선교사들이 오래 전 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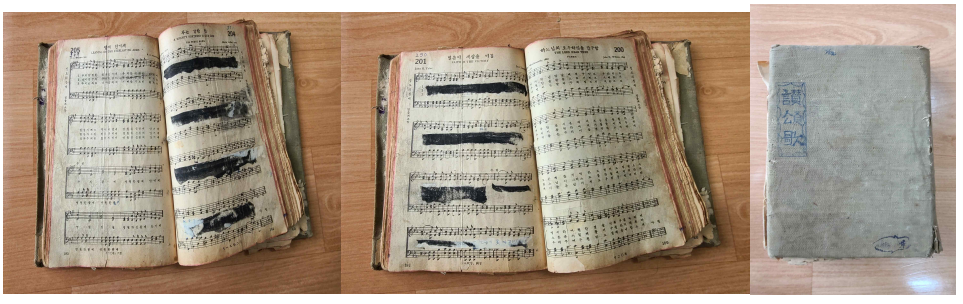
《김제 송지동교회 당회록》



《김제 송지동 교회 성찬기》

《첫 예배 초가집에서 뜯어낸 마루바닥》

《 일제 시대에 사용되었던 김제 송지동교회 찬송가》



4) 신전교회: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125-1 (담임 박창석 목사)

신전교회는 1907년 11월 29일 미국 남장로교 클락(W. M. Clark, 康雲林)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박래문, 문귀선, 김사일, 박승기, 정세갑 등이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음신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신전교회는 장수지역의 모체교회로 1956년 계남교회, 1968년 내동교회를 설립하였으며, 1911년 장수교회, 1927년 장계교회, 1930년 대성교회, 1946년 금암교회, 1953년 북문교회, 1980년 영광교회 등이 교회설립과정과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전교회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특히 신전교회는 '예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잘 알려진 교회이다. 과거 마을의 70가구 대부분이 예수를 믿었으며, 지금은 45가구 중 외지에서 온 천주교인 한 가구와 예수를 믿지 않은 두 가구 외에는 모두 신전교회 성도들이다. 신전리는 기독교 가치관과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교회나 마을이 행사날짜를 정할 때 미리 의논하여 서로 일정을 피하여 정하였으며 애경사가 있을 경우, 주일을 피하여 진행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정자를 짓고 상량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성경구절을 기록한 점도 들 수 있다. 또한 신전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된 새마을 운동은 전국 39,900여 개의 부녀회 중 최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 1991년 협동조합 조직대상기념비가 마을에 세워지기도 하였다.

신전교회는 1955년 건축한 예배당과 1964년 돌 종탑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돌 종탑은 미신타파의 일환으로 서낭당의 돌을 무너뜨리고 그 돌로 교회 종탑을 쌓았다.

• 역사적 의미:

〈무형〉

1. 신전교회는 미국 남장로회 클락 선교사에 의해 장수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다. 신전교회는 지역의 중심교회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2. 신전교회 문달석 장로, 박진서 장로는 신사참배 문제로 수없이 경찰서에 불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후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이들을 통해 신전교회는 신사참배 중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몇 안 되는 교회이다.

3. 신전교회는 '예수마을'로 불려지는 마을과 함께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보기 드문 교회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지향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형〉

1. 구예배당
   구예배당은 1955년 5월 건축하여 1964년 7월에 증축한 건물이다. 구예배당 건물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1950년대 유행하던 석조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하단부와 입구를 대리석 모양을 낸 현대식 양식을 보이고 있다. 1940년대 이후 전북지역 교회의 건축사적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건물이다.

2. 돌 종탑
   돌 종탑은 1964년 구예배당 옆에 세웠는데 지금도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목조 종탑과 철탑 사이에 석조와 돌 종탑이 유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전교회의 돌 종탑은 종탑의 변천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

• 조사자 소견:

신전교회는 1907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장수지역 복음화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였다. 신전교회는 장수지역 최초의 교회로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그 중에도 무형의 기독교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데 신사참배 중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교회이며, 복음을 수용한 이후 미신을 타파하고 '예수마을'로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로 교회가 지향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주제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한다면 신앙교육에 있어서 유익한 사적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교회이다.

유형의 기독교 유물인 구예배당 건물과 돌 종탑은 근대기독교건축양식을 밝히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와 같은 유무형의 기독교 문화와 유물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신앙과 정신을 말해주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역사문화적으로 작은 흔적만 있어도 그것에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되살려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신전교회가 담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보존하고 문화유산에 깃들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번 제105회 총회에서 신전교회를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5) 연당교회: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1004 (담임교역자 강경희 전도사)

연당교회는 1908년 강두수(姜斗秀)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강두수는 초기 영주지역 교인으로 연당교회를 설립하고 영수로 활동하였다. 그는 복음을 받은 후 풍산교회와 방령교회에 다녔는데 아버지로부터 무수한 핍박을 받았지만 지곡교회를 설립하고 1908년 연당교회를 설립하였다. 강두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을 앞두고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는 등 동화정책을 극대화하였는데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의 상용을 강제하였으며 학교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면 벌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강두수는 당시 일본어로 설교하지 않고 조선어로 설교하였는데 일본 순사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강두수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끌어내는 일도 있었다.

연당교회는 지리적인 환경이 열악하여 교회성장과 유지에 어려움이 많아 일정 기간을 영주읍교회 기도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923년 영주읍교회는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던 연당교회를 경안노회에 분립하는 청원하였다. 연당교회는 분립한 지 3년이 지난 1926년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예배당을 영주읍교회 부속기도실로 허락해 달라고 경안노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노회의 기도실로 허락을 받은 후 경안노회에서는 연당교회외 6처 교회를 임학수 목사가 시무하도록 하였다. 그러다 1942년, 일제에 의해 1면 1교회 시책으로 연당교회는 폐지되었다.

해방 이후 연당교회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미 교회는 폐허가 되어 교회로 사용하기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일본인이 사용한 조합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1953년 강대은을 장로로 장립하여 당회를 조직하였으며 1959년 에큐메니칼 운동에 따른 교단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안노회 대부분이 통합측을 선택하였지만 연당교회는 보수신앙과 신학을 수호하였다.

현재 연당교회는 안동노회에 소속되어 강두수 영수의 증손녀인 강경희 전도사가 시무하고 있다.

• 역사적 의미:

〈무형〉

1. 연당교회는 초기 영주지역 교인인 강두수 영수가 세운 교회로 4대가 교역자로 연당교회를 섬겼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강두수 영수는 일제 강점기에 신앙의 순수성과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수난을 당하였고, 그의 손자 강현원 장로는 1959년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교단분열 당시 연당교회를 보수신앙을 견지하는 우리교단(예장합동)에 소속되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수호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유형〉

1. 예배당
   연당교회 예배당은 한옥 건축물로 초기부터 교회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증언에 따르면 일제 지배시기 일본 조합으로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정확한 건축 연도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근대건축사적 의의는 큰 것으로 추측된다.

• 조사자 소견:

연당교회는 1908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서 시작한 후 지금까지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초기 영주지역 교인인 강두수 영수가 세운 교회로 4대가 교역자로 연당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신앙교육 현장으로써 가치가 높은 교회이다. 연당교회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59년 에큐메니칼 운동 당시에는 보수신학, 보수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선 교회로서 무형의 가치가 있다. 연당교회는 신앙을 계승하는 정신성에 있어서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교회이다. 그러나 유형의 유물인 예배당은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연당교회는 신앙의 유산에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삶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므로 금번 제105회 총회에서 연당교회를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한다.

총회역사위원회 최종보고

1.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

1) 사적지 지정관련

- 경청노회 / 사월교회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
- 군산남노회/ 익산서두교회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
- 김제노회/ 송지동교회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
- 동전주노회/ 신전교회, 황금교회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
- 북전주노회/ 수만교회, 신월교회, 학동교회 순교사적지 지정 헌의
- 순천노회/ 웅동교회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
- 인천노회/ 백령도 중화동교회 역사사적지 지정 헌의

결론) 위 사적지 지정 헌의 요청 중 사월교회, 서두교회, 백령도 중화동교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앞서 사적지로 지정 결의되었으며 나머지 교회에 대하여 사적지 지정을 위한 현장답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별지 청원서와 같이 사적지 지정을 청원하게 되었음

2) 박형룡 박사 묘소이전 관련

- 수경노회 / 박형룡 박사 묘를 총신양지캠퍼스 소래교회 옆 동산으로 이전 헌의
- 수도노회 / 고 박형룡 박사 묘소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양지캠퍼스)로 이전 청원

결론) 박형룡 박사 묘소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이전 건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하다.

2. 제104회 추진 사업개요

추진사업명	일 시	분과
1) 사적지 지정 감사예배	2019.12.16(월)14:00, 익산서두교회 /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6호	임원/ 사적지 지정분과
	2020.6.2(화)14:00, 부귀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4호	
	2020.8.9.(일)19:00, 반야월교회 /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7,18,19,20호	
2) 사적지 발굴 현장답사	- 웅동교회(2020.5.28.-5.29) - 신전교회, 수만교회, 신월교회, 학동교회, 송지동교회, 위봉교회(2020.5.25-5.26) - 연당교회(2020.7.6)	임원/ 사적지 지정분과
3) 정기학술 저널집「장로교 역사와 신앙」제3호 발간	제105회 총회현장 배부 - 6.25전쟁 70주년 특집	임원/ 편집위원
4) 전국교회 사료기증 제출독려	2020.2.4. 기독신문 5단 광고 /	임원/ 사료분과

3. 제105회 사업계획(안)

구 분	추진사업계획(안)	해당 예산금액
회 의	전체회의 / 임원회의 / 분과회의	15,000,000
임원회	총회역사관 운영관리비 (상시개방 역사관소개 및 안내 임시직채용, 자료교체, 시설보수)	20,000,000
	역사위원회 및 사이버 총회역사관 홈페이지 구축	5,000,000
	가이드북(개정판) 제작	20,000,000
	역사유물 인수시 제경비	5,000,000
사료분과	사료실 분류작업 및 목록화 작업, 기자재구입 임시직 채용	15,000,000
	역대 총회회의록 PDF 및 정서작업 계속추진	20,000,000
	기획전시전 개최준비	10,000,000
	전국교회 사료수집 및 기증 홍보독려	5,000,000
사적지 지정분과	사적지 지정감사예배 (8곳)	20,000,000
	사적지발굴 현장답사 및 연구조사보고서 작성	5,000,000
연구분과	정기간행물 역사저널집「장로교 역사와 신앙」	20,000,000
	정기학술 세미나	5,000,000
합계		165,000,000

청 원 서

수신 : 총 회 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총회역사위원회 사업 및 예산청원

1. 한국기독교 사적지 지정청원

한국기독교 순교 및 역사사적지를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사적지(3곳)		역사사적지(5곳)	
지정호수	교회명	지정호수	교회명
제6호	학동교회	제21호	위봉교회
제7호	수만교회	제22호	송지동교회
제8호	신월교회	제23호	웅동교회
		제24호	신전교회
		제25호	연당교회

※ 동전주노회 황금교회는 한회기 좀더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할 예정으로 금번 회기에는 사적지 지정을 보류함

2. 총회회관내 총회사료실 마련요청

현재 총회회관내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사료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료관리 및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총회사료실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3. 예산청원

총회역사위원회의 제105회기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추진사업계획(안)	해당 예산금액
회 의	전체회의 / 임원회의 / 분과회의	15,000,000
임원회	총회역사관 운영관리비 (상시개방 역사관소개 및 안내 임시직채용, 자료교체, 시설보수)	20,000,000
	역사위원회 및 사이버 총회역사관 홈페이지 구축	5,000,000
	가이드북(개정판) 제작	20,000,000
	역사유물 인수시 제경비	5,000,000
사료분과	사료실 분류작업 및 목록화 작업, 기자재구입 임시직 채용	15,000,000
	역대 총회회의록 PDF 및 정서작업 계속추진	20,000,000
	기획전시전 개최준비	10,000,000
	전국교회 사료수집 및 기증 홍보독려	5,000,000
사적지	사적지 지정감사예배 (8곳)	20,000,000

구 분	추진사업계획(안)	해당 예산금액
지정분과	사적지발굴 현장답사 및 연구조사보고서 작성	5,000,000
연구분과	정기간행물 역사저널집「장로교 역사와 신앙」	20,000,000
	정기학술 세미나	5,000,000
합계		165,000,000

2020년 9월

총 회 역 사 위 원 회

위원장 함 성 익

서 기 신 종 철